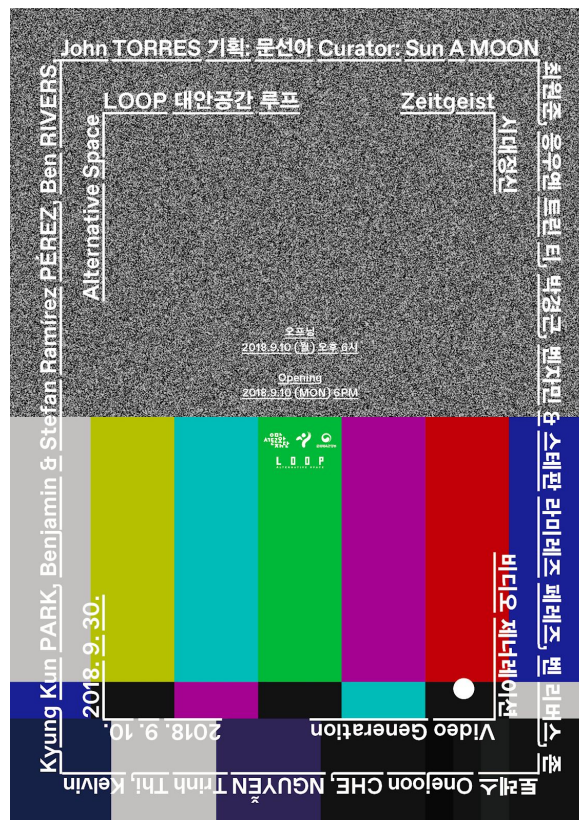


[보도자료]

시대정신: 비디오 제너레이션

수 신: 담당 기자님
제 목: <시대정신: 비디오 제너레이션> 보도자료
배포일: 2018. 9. 4
담당자: 문선아
문 의: 010-9389-0523 | thisissuna@gmail.com | www.zeitgeists.co.kr | <http://www.galleryloop.com>
드롭박스: 아래 링크에서 보도자료, 이미지, 캡션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ropbox.com/sh/nyq0khraccp9ylv/AACG0kvFRQwioNCQiRBVNL6a?dl=0>



전시 개요

- 전시명 : <시대정신: 비디오 제너레이션>
- 기획 : 문선아
- 참여 작가 : 최원준, 응우옌 트린 티, 박경근, 벤자민 & 스테판 라미레즈 페레즈, 벤 리버스, 존 토레스
- 전시기간 : 2018.9.10 (월) ▶ 2018.9.30 (일)
- 전시장소 : 대안공간 루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35-11)
- 전시구성 : 비디오, 설치 등 총 7 작품
- 주최 / 주관 : 대안공간 루프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 오프닝 : 2018.9.10 (월) 오후 6시, 대안공간 루프
- 스크리닝 : 2018.9.30 (일),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0-1 지하1층)

시대정신: 비디오 제너레이션

미디어라는 말이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모두가 미디어를 다르게 정의하고, 서로 다른 외연을 포함시킨다. 이에 미디어는 점차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개념이 되어가고 있다. 미디어가 개인의 삶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지금, 우리는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디어의 과거를 살피고 현재의 미디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오늘날을 지배하는 미디어의 특성 한 가지는 문자보다 영상에 익숙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글을 읽는 대신 텔레비전과 영화를 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지에는 수많은 영상들이 넘쳐나고 스스로 편집하고, 차용하고, 만들어서 방송하기까지 한다. 주요 미디어가 문자에서 무빙 이미지로 변경된 까닭이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에 이뤄진 한국에서의 가정용 비디오 기기 보급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에 앞서 이 거대한 변화를 선취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무빙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외 영상 미디어 아트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하여 비디오 기기의 동장이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1970년대 출생한 작가들에 주목한다. 해당 작가들이 갓 태어나거나 영·유아였던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에는 컬러 텔레비전과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Video Tape Recorder, 이하 VTR), 캠코더(Camera+Recorder)로 대표되는 가정용 비디오 기기들이 보급됐다. 이 기기들은 (1) 스스로 촬영하여 녹화하고 편집할 수 있는 주체성, (2) 다양한 색감 활용, 개성 강조, (3) 편리성, 이동성, 비용절감으로 다큐멘터리, 홈비디오 촬영 등을 가능하게 하면서 시각문화에 대 변동을 일으켰고 사회에 전반에 걸쳐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켰다.

문화 전반이 변동하면서, 일명 '포스트 VTR 세대' 혹은 '비디오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해당 작가들은 어린 시절부터 비디오 기기들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미디어로 받아들였으며 '비디오 문화'를 공유하고 이를 체화했다. 영상 노출 빈도수가 높아 문자 미디어보다 영상 미디어에 익숙한 이들은 자신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여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체험해왔으며, 다양한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프로그램들을 통해 누적된 문화 감수성을 공유한다.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에서는 1990년 중반 문민정부의 출범을 경험하면서 정치 이념보다 문화를 중시하고 권위적인 기성문화보다 끊임없는 변혁을 추구하며 거대서사보다 미시서사에 집중하는 성향을 강화한다. 기획자는 이러한 경험들이 작가들이 성인이 된 후 영상 미디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내러티브를 구성해가며 작업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한다.

실제로 전시에 초대하는 최원준 (b.1979), 응우옌 트린 티 (b.1973), 박경근 (b.1978), 벤 리버스 (b.1972) 작가는 영상 미디어 아트에 집중해 작업하면서 영상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파운드 푸티지(Found Footage)를 활용하여 몽타주(Montage)를 구성함으로써 무빙 이미지의 미장센(Mise-en-scène)을 고민하고 개인사적 기억을 사회사와 연동시킨다. 또한 영상이 전시로 선보이게 되는 지점, 즉, 미디어 아트로서의 영상 차원에서는 2차원의 영상을 3차원의 공간에 어떻게 전시하고 관람객의 경험을 어떤 내러티브로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영상의 안과 밖의 미장센과 몽타주를 고민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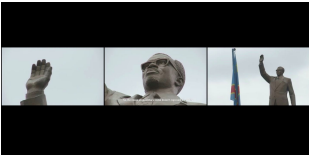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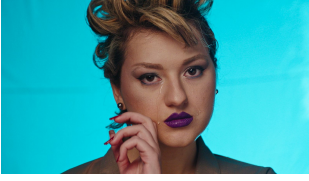
비디오 기기의 영향이 비단 미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영상 문법을 심화하는 지점에서 영상 미디어 아트는 다큐멘터리 영화, 영화의 디지털화와 조우한다. 해당 작가들의 영상 미디어 작업은 현실에 대한 관찰한 기록 영상과 도큐먼트를 바탕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다큐멘터리와 연동된다. 또한, 3차원의 전시 공간에 존재하던 영상들이 2차원의 평면으로 들어가 어떻게 몰입이 가능한 내러티브와 몽타주를 구성할 것이냐를 묻고, 2차원의 평면에 존재하던 영화들이 3차원의 물리적 공간으로 나와 어떻게 무빙 이미지의 미장센을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영화와 무빙 이미지 작업 간의 경계가 무너진다. 이에 전시는 영화감독 존 토레스 (b.1975)를 초대하여 영상 미디어 설치 작업들이 영화와 만나는 접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전시는 1980년대생이지만 비디오 제너레이션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영화와 영상 미디어 아트를 오가며 작업하고 있는 벤자민 & 스테판 라미레즈 페레즈 (b.1988)를 초대하여 비디오 제너레이션의 정체성이 확장가능할 지를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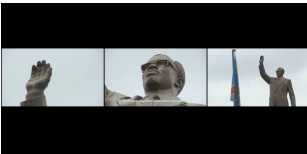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1970·1980년대 출생한 비디오 제너레이션 작가들의 영상 미디어 설치 작업들을 살펴보면서 영상 안에서 그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영상을 활용하고 각자의 내러티브를 구성해내는 지, 그리고 영상 밖에서 어떻게 2차원과 3차원에서의 관람객들의 체험을 구성해내는 지를 탐구한다. 또한 이를 심화하기 위해 전시 기간 중, 전시의 작업들을 영화관에서 선보이는 스크리닝 데이를 마련한다. 전시와 스크리닝 데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각 작가들이 '갈고도 다른' 영상 문법으로 어떻게 관람객들의 신체적·현상학적 무빙 이미지 경험을 구현해내는 지,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글: 문선아


출품작 리스트

작가	작품 이미지	캡션
<p>최원준 Onejoon Che</p>		<p><만수대 마스터 클래스>, 스틸 이미지, 3 채널 영상 설치, 40' 32", 2016, 이미지 제공: 작가</p> <p><i>Mansudae Master Class</i>, Film still, 3 channel video installation, 40' 32", 2016, Courtesy of the artist.</p>
<p>응우옌 트린 티 Nguyễn Trinh Thi</p>		<p><판두랑가에서 온 편지>, 스틸 이미지, 단채널 영상, 35', 2015, 이미지 제공: 작가</p> <p><i>Letters from Panduranga</i>, Film still, 1 channel video installation, 35', 2015, Courtesy of the artist.</p>
<p>박경근 Kelvin Kyung Kun Park</p>		<p><청계천 메들리 아시바>, 혼합재료, 3m(H) x 4m(W) x 3m(L), 2010-2015, 이미지 제공: 작가</p> <p><i>Cheonggyecheon Medley Ashiba</i>, Mixed Media, 3m(H) x 4m(W) x 3m(L), 2010-2015, Courtesy of the artist.</p>
<p>벤자민 & 스테판 라미레즈 페레즈 Benjamin & Stefan Ramírez Pérez</p>		<p><컨플루언스>, 스틸 이미지, 단채널 영상, 21', 2017, 이미지 제공: 작가</p> <p><i>CONFLUENCE</i>, Film still, 1 channel video installation, 21', 2017, Courtesy of the artist.</p>
<p>벤 리버스 Ben Rivers</p>		<p>행복한 땅, 스틸 이미지, 단채널 영상, 20', 2015, 이미지 제공: 작가 & 럭스, 런던.</p> <p><i>THERE IS A HAPPY LAND FURTHER AWAAAY</i>, Film still, 1 channel video installation, 20', 2015, Courtesy of Ben Rivers and LUX, London.</p>
<p>존 토레스 John Torres</p>		<p><이상한 루카스>, 스틸 이미지, 단채널 영상, 85', 2013, 이미지 제공: 작가</p> <p><i>Lukas the Strange</i>, Film still, 1 channel video installation, 85', 2013, Courtesy of the artist.</p>


작품 소개

<p>최원준 Onejoon Che</p>		<p><만수대 마스터 클래스>, 스틸 이미지, 3 채널 영상 설치, 40' 32", 2016, 이미지 제공: 작가 <i>Mansudae Master Class</i>, Film still, 3 channel video installation, 40' 32", 2016, Courtesy of the artist.</p>
----------------------------	---	--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에서 최원준은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활동, 그 중에서도 대아프리카대륙 활동을 추적하여 기록한다. 이 리서치를 기반으로 촬영한 사진, 영상을 역사적 도큐먼트, 파운드 푸티지들과 교차시켜 냉전 이데올로기의 이면에 가려진 남북한-아프리카간의 정치적·역사적 상황을 특유의 미학적·객관적인 시선으로 담아낸다. 그가 중점적으로 다루어 온 ‘한반도의 분단’과 ‘근대화’라는 주제는 이 작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우한다. 작업은 3채널 영상 설치이자 장편 다큐멘터리로 선보여지는데, 전시 차원의 3채널 영상 설치가 이미지의 연속성, 동시성 등을 가능케 하여 세 개의 화면 몽타주를 통해 시각성을 한층 강조한다면, 장편 다큐멘터리는 내러티브의 연속성에 보다 집중해 구성된다.

<p>응우옌 트린 티 Nguyễn Trinh Thi</p>		<p><판두랑가에서 온 편지>, 스틸 이미지, 단채널 영상, 35', 2015, 이미지 제공: 작가 <i>Letters from Panduranga</i>, Film still, 1 channel video installation, 35', 2015, Courtesy of the artist.</p>
--------------------------------------	---	--

응우옌 트린 티는 <판두랑가에서 온 편지>를 단채널 영상 설치이자 중편 다큐멘터리로 선보인다. 과거 판두랑가였던 닌투언 지역에 핵발전소가 건설된다는 소식은 참족 커뮤니티의 붕괴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이에 작가는 닌투언 지역의 고즈넉한 풍경과 토착 세력인 참족의 초상을 기록·교차시켜 픽션과 다큐멘터리를 오간다. 남자와 여자가 편지를 주고 받는 보이스 오버 형식과 단채널과 2채널 형식을 오가는 화면 구성을 통해 베트남의 복잡한 과거와 현재, 식민 역사의 기억 등을 다층적으로 가로지르면서도, 카메라와 인물 간, 카메라와 풍경 간의 지속적인 근접 응시를 통해 관객과 영상 간의 거리를 좁히고 서정적 몽타주를 완성해낸다.

<p>박경근 Kelvin Kyung Kun Park</p>		<p><청계천 메들리 아시바>, 혼합재료, 3m(H) x 4m(W) x 3m(L), 2010-2015, 이미지 제공: 작가 <i>Cheonggyecheon Medley Ashiba</i>, Mixed Media, 3m(H) x 4m(W) x 3m(L), 2010-2015, Courtesy of the artist.</p>
--	---	--

박경근은 전근대와 근대가 뒤섞인 청계천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철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고도성장과 경제개발이라는 한국의 근대 신화 뒤에 숨어있는 시대적 부산물과 광경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그의 카메라는 청계천의 다양한 철공소, 주물 공장, 금형 공장 등을 관찰하고, 작업에는 직접 촬영한 영상과 파운드 푸티지들이

한데 엮인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설치 <청계천 메들리 아시바>는 철에 대한 감각적이고 관념적인 이미지들을 강조하여 시각성을 극대화한다. 여기에 쇠소리와 기계음들이 혼합 돼, 작업은 다소 자극적인 몽타주를 구성한다. 장편 다큐멘터리 <청계천 메들리>는 보이스 오버 형식을 통해 에세이성을 강조하여 청계천의 이야기를 우리나라 근대의 역사로 확장한다.

벤자민 & 스테판 라미레즈 페레즈 Benjamin & Stefan Ramírez Pérez		<컨플루언스>, 스틸 이미지, 단채널 영상, 21', 2017, 이미지 제공: 작가 <i>CONFLUENCE</i> , Film still, 1 channel video installation, 21', 2017, Courtesy of the artist.
--	---	--

벤자민 & 스테판 라미레즈 페레즈는 <컨플루언스>에서 전 아역스타이자 세르비안 팝 가수인 도리스 비제틱(Doris Bizetic)의 삶을 단채널 영상 설치이자 단편 다큐멘터리로 소개한다. 다양한 푸티지가 섞여 현재 그의 삶의 단면들이 픽션과 다큐멘터리를 넘나들며 렉처 퍼포먼스 형식과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되고, 그가 과거에 겪은 전쟁 외상에 대해 얘기하면서 개인사의 기저에 깔린 세르비아의 역사와 정치 상황이 드러난다.

벤 리버스 Ben Rivers		행복한 땅, 스틸 이미지, 단채널 영상, 20', 2015, 이미지 제공: 작가 & 럭스, 런던. <i>THERE IS A HAPPY LAND FURTHER AWAAAY</i> , Film still, 1 channel video installation, 20', 2015, Courtesy of Ben Rivers and LUX, London.
-------------------------	--	---

벤 리버스는 단채널 영상 설치이자 단편 다큐멘터리 <행복한 땅>에서 외딴 화산 군도, 바누아투 공화국의 풍경을 담아낸다. 2015년 초, 이 지역이 사이클론 팜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영상은 과거 존재했던 공간에 대한 다큐멘터리이자, 돌이킬 수 없는 기억이 된다. 앙리 미쇼(Henri Michaux)의 시를 한 여성이 실수를 거듭하며 낭독하는 보이스 오버를 통해 작가는 현실과 영상 간에 거리를 형성하고 전시공간, 화자가 있는 공간, 이미지가 있는 공간 간에 다중적 시점을 만들어내면서 몽환적인 몽타주를 구성한다.

존 토레스 John Torres		<이상한 루카스>, 스틸 이미지, 단채널 영상, 85', 2013, 이미지 제공: 작가 <i>Lukas the Strange</i> , Film still, 1 channel video installation, 85', 2013, Courtesy of the artist.
--------------------------	---	---

존 토레스는 장편 다큐멘터리 <이상한 루카스>에서 자신이 친구의 이야기를 잘못 전해 듣고 과거에 주체와 객체를 혼동했던 경험과 필리핀의 반인반마 틱발랑 신화를 연계하여 다큐멘터리의 가능성을 실험을 한다. 구인·캐스팅 과정 등 영화 준비·촬영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다양한 파운드 푸티지들과 한데 뒤섞어 연결고리와 인과관계가 불친절하게 파쇄된 몽타주를 선보인다. 특히, 발화의 주체를 여럿으로 만들어 누구의 관점으로 영화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데, 이 지점에서 결국 영화의 전체적인 내러티브를 완성하는 것은 자신의 사적인 기억과 경험을 작업에 투영해내는 또 다른 발화자이자 최종 발화자인 관람객이 된다.

스크리닝 & 토크 일정

일시: 9월 30일 (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장소: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0-1 지하1층)

오전 10시 - 오후 1시 10분	<행복한 땅>, <청계천 메들리>, <이상한 토레스>
오후 1시 10분 - 2시	휴식
오후 2시 - 4시	<컨플루언스>, <판두랑가에서 온 편지>,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
오후 4시 - 6시	문선아 기획자 & 김지훈 교수 (중앙대학교) 대담

시대정신 시리즈 소개

오늘날의 '시대정신'(Zeitgeist)은 무엇일까. 시대정신이란 특정 시대를 풍미한 감정 상태와 사고 경향, 정신자세나 태도를 일컫는다. 이 정신의 형성이 주변 환경과 물질문화, 인터페이스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기획자는 시대정신이 현 시대에 어떻게 현상적으로 구현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단 하나의 시대정신이 시대를 관통한다기보다 면면을 바꾸며 여러 '시대정신들'이 다발적으로 겹쳐져 세계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헤겔의 '시대정신' 개념을 일부 해체한다. 이를 통해 다면적으로 변해가는 오늘날의 시대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명하려 한다.

특히, 기획자는 세대별로 다른 태도들이 형성되는 현상을 그들이 향유하는 보편적 미디어의 변화와 평행하게 두고 살펴봄으로써 다름이 형성되는 타당한 근거를 추정하고 사회 기반과 소통구조의 변화에 각 세대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전시 <시대정신: 非-사이키델릭; 블루>는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이태원에 위치한 아마도예술공간에서 진행됐다. 이 전시에서는 1980년 중반부터 1990년 초반에 출생한 작가들의 작업을 '인터넷 이후의 예술(포스트인터넷 아트)'의 관점에서 소개했다.

기획자 소개

철학과 미술이론을 전공한 문선아 (b.1985)는 2012년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문래동 일대에서 <은화한 관계 맺기>를 공동기획했고, 2013년부터 2년 동안 월간 『퍼블릭아트』의 기자로 활동했다. 2015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린 개관전 <플라스틱 신화들>에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참여한 바 있으며, 시대정신 시리즈를 기획하여 2016년 첫 전시 <시대정신: 非-사이키델릭; 블루>를 아마도예술공간에서 선보였다. 2017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트선재센터에서 진행된 다큐멘터리 시어터 <리상국>과 <나는 평양에서 온 모니카입니다>의 프로듀서로 일했고, 2018년 암스테르담의 드 아펠 센터에서 열린 <Brace for Impact>를 공동기획했다. 2016년 아마도전시기획상과 비평페스티벌 2016상을 받았고, 2017년에는 런던의 테이트 인텐시브프로그램을,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암스테르담의 드 아펠 큐레이토리얼 프로그램을 거쳤다.